

목포 뮤직플레이 용역사 선정 '잡음'

용역비 10억9000만원...6곳 입찰 탈락업체 "불공정하게 선정" 반발 시 "출연진 섭외 등 절차대로 진행"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5 목포 뮤직플레이 행사 대행 용역' 평가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용역 입찰 공고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됐다"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5 목포 뮤직플레이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를 통해 총 6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E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이며, 용역비만도 10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시 공고안은 행사 프로그램 출연진 등은 목포시와 사전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협상 진행 중 초안 보고 시 제안서에 제시한 라인업(헤드라이너급 이상) 섭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는 초안 보고 시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70점)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는 게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참여한 한 업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의 이익만 대변해주는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A 기획사 대표는 "입찰 결과를 수긍하려 했으나 공고안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심지어 계약까지 진행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며 "목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행사 프로그램 출연진 등은 시와 사전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어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다만 제안서가 늦어졌지만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 절차대로 진행돼 현재는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신생아 면역 형성 질환 예방

진도군이 올해부터 임신부와 신생아의 면역 형성을 위해 27주~36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사진>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력이 강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지난해에 환자가 4만명을 넘어섰고 영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신부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되고, 영아는 이 항체로 첫 국가접종 시기인 생후 2개월 무렵까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대상 임신부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산모는 기준에 나뉘던 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보건소 예방접종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통해 임신부가 백일해로부터 본인과 아이를 지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도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 퍼플교 전경.

신안군 퍼플섬, 문체부 '한국관광 100선' 선정

신안군은 '퍼플섬'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내에서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지난 2012년부터 국내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퍼플섬'은 지난 2019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대상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의 별' 분상 수상에 이어 2021~2022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퍼플섬은 노지에 핀 도라지꽃을 보고 보라색의 컬러마케팅을 시작했다. 가옥의 지붕에서부터 입

는 의복과 도로, 꽃 모든 것을 보라색으로 입혔다. 그리고 "육지를 걸어서 나가고 싶다"는 안좌면 박지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지난 2008년 11월 분심 안좌도와 박지도를 연결한 연도교에도 보라색을 입힌 퍼플교는 대표적 명소가 됐다. 박우량 군수는 "올해는 퍼플섬 곳곳에 식재된 초화류 155만주(프렌치라벤더, 버들마편초, 아스타국화)의 재정비를 통해 퍼플섬을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켜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kwangju.co.kr

해남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

임플란트 300만원·보철 200만원

해남군이 취약계층의 의료 건강을 위한 의치·보철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료), 다문화 이주여성 등이다. 지원 내용은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비로 1인당 300만원까지, 보철 및 임플란트, 레진 시술비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보건소를 통해 의치(틀니), 보철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달 해남군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군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점심 식사 후에도 치솔질 해요'라는 주제로 함께 범군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의치 시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주민들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해 구강 기능 회복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형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46㎡ 등 110호...18~3월7일 신청
영암군이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할 청년·신혼부부를 모집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신혼부부 등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서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해 총 200호 아파트를 영암

형 공공주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이에 맺은 청년주택 공급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영암군은 지난해 그 첫 사례로 삼호중앙LH 아파트 30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 46㎡ 삼호중앙LH 1단지 50호, 29㎡ 학산LH 10호 등 60호를 추가 공급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 등은 임대보증금 없이 약간의 예치금을 내고 2년간, 2회 기간 연

장 시 총 6년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신청은 영암군민이거나 입주일까지 전입할 수 있는 19~49세가 신청할 수 있고 1인가구는 월소득이 358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정부24'와 오프라인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에서 모집한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영암형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맛플무안몰' 양파·마늘 소비촉진 기획전

최대 30% 할인·할인쿠폰 지급

무안군이 오는 14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가공식품 할인 기획전과 양파·마늘 소비촉진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에서는 건강즙(양파즙, 양배추즙), 차류, 양파간장, 떡, 간식 등 전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양파·마늘 카테고리 내 모든 상품 구입

시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무안은 양파, 마늘의 최대 생산지로 우수한 황토의 성분인 양파, 마늘 생육에 영향을 주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김산 무안군은 "지역 농특산물로 개발된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접해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이벤트로 맛플무안몰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